



물류인의 축제

2004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 성료



- 3일간 12개 트랙 36개 세션 및 8개 특별세션으로 진행
- 라운드테이블, 물류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사)한국물류협회(회장 : 서병륜)가 주최하는 제12회 '2004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매년 국내 최대의 물류축제로 개최되는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는 참가자들이 최신 물류이론과 전략, 기업 적용 사례 등을 한 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자리로 물류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물류혁신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개최된 '2004 한국물류 혁신 컨퍼런스'는 기업의 단순한 물류관리상의 합리화가 아닌 해당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물류관리를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혁신 컨퍼런스는 세계적 추세인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및 국제적 분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기업들을 물류혁신으로 인도할 관제탑이라 할 수 있다.

제12회 '2004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는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이하는 (사)한국물류협회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건설교통부,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한솔CSN, 한국암웨이, 현대모비스, 한국IBM, 삼성HTH택배, 기아자동차 등이 후원 및 협찬하였다.

서강호 한국물류혁신대회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은 제휴체제나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추구함과 동시에 물류혁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물류합리화를 통해 개별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의 행사가 국내물류산업의 발전과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대신했다.

서병륜 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국가 경쟁력으로서 물류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물류혁신 컨퍼런스를 계기로 물류산업과 관련한 국제동향과 최신정보를 파악하고 국내외 물류 전문가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재희 동북아시아위원회 물류분과위원장의 '동북아 구상과 물류중심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산학연관의 물류전문가 50여명이 12개 트랙 36개의 세션과 8개의 특별세션을 맡아 각각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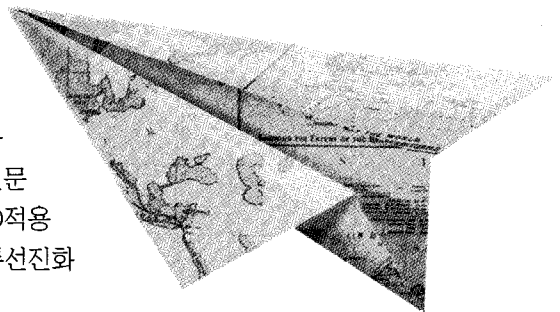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국가물류정책방향 △물류표준화, 물류네트워크 △물류인프라 구축 및 물류산업 활성화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24일에는 △동북아물류HUB 및 물류거점 최적화 전략 △Supply Chain Execution △환경물류 및 물류비 △아웃소싱과 3자물류, 마지막날인 25일에는 △RFID 추진전략 △물류공동화 추진사례 △물류서비스 개선전략 및 사례 △글로벌 기업의 선진물류기법 소개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특히, 특별 세션은 한국물류협회가 초청한 외국기업의 저명한 물류인사 등이 선진물류에 대해 발표했다.

24일에는 팀 호삭(Tim Hossack)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주) 전무가 '한국물류시장에서의 기회창출', 25일에는 일본의 저명한 물류전문가 카즈 요시무라(kazuo Yoshimura)가 '일본 에어텔산업의 RFID적용 추진사례', Will Duckworth IBM BCS / AP RFID Leader가 '물류선진화 구현을 위한 능동적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그리고, 최근 역동적 경제성장세를 보이며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대중국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중국물류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대중국 진출기업의 물류대응전략'이라는 테마로 23일과 24일 양일간 라운드테이블을 실시했다.

'중국물류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에서는 이현수 교수가 발표하고 김강민 농심이사, 홍선덕 중국진극저운유한회사 대표, 임종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두 번째날 열린 '대중국진출기업의 물류대응전략'에



Get
the Logistics
Evolution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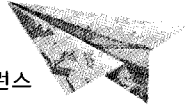
서는 박명규 힐스로지스틱 대표가 발표하고, 문인찬 딜로이트 투쉬 상무, 조윤주 cj시스템즈 상무, 신순철 현대택배 전무, 이석태 초당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헌수 교수는 WTO가입에 따른 중국물류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거대자본과 선진기술을 가진 다국적 물류기업이 대거 진출함으로써, 물류시장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물류가 급속히 발전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물류관리체제의 분할과 법 체계가 미비하여 물류발전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물류기초시설 미비, 운송수단간의 연계 미흡 등이 제시됐다.

박명규 힐스로지스틱 대표이사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비우호적인 평판, 수송과 창고운영의 낮은 효율성, 불충분한 인프라 등의 국내외 기업들이 겪는 애호사항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중국진출 방안에 대해서 물류기업의 대형화, IT기반의 물류서비스 제공, 전략적 제휴 및 합작 투자 추진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좌장으로 방희석 중앙대학교 교수와, 김성원 케이피엘 이사가 각각 맡아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조, 유통, 물류기업의 물류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간 물류정보 교환과 교류를 강화하는 '물류인의 밤' 행사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됐다.



【21세기 물류산업의 비즈니스 혁신전략】 - 문형규 차장, IBM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나날이 변모하는 기술 환경에서, 여타 산업과 같이 물류 업계도 변화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 활동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수송 물동량이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물류 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생활의 질에 대한 추구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의 기대수준 향상은 물류 업계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물류업체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더 높은 수준의 물류 서비스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많은 기업들이 웹기반의 정보 통신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물류 업체들이 기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효율적인 기업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가를 통제함으로써 수익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의 시작점을 전략적 투자로 볼 때, 투자 결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 먼저, 진정한 핵심 프로세스에 집중하여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협업적 모델의 프로세스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이 고정 자산으로 묶여 기업의 민첩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외부 상황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류와 RFID추진전략】 - 최동준 한국무역정보통신 E-전략팀 선임연구원

유통과 물류에 있어서 바코드의 등장은 혁신적인 것으로 2차원 바코드 이후 3차원 바코드의 등장을 예견하게 된 현 시점에서 새로운 혁명을 맞이할 만한 전환 기술이 등장했다. 그것이 바로 RFID이다.

RFID는 3차원 바코드의 등장이 예견되었던 정보 저장량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선 주파수 방식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이라는 새로운 특성으로 유비쿼터스 혁명이라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사용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에서는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여 RFI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술분야라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 해준다. 그러나 적용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서 현재 RFID와 관련한 표준화 및 주파수 등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아직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난 2월 방문했던 일본에서는 Traceability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이미 상당부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일본도 정부에서 RFID 부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히다찌, 파나소닉과 같은 기업들은 이미 제품을 내놓고 있었다.

Traceability는 세계적인 물류 이슈인 Visibility와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RFID는 개별적인 사용보다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RFID와 바코드를 혼용 사용하여 RFID로의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전략들이다.

또한 GPS와 RFID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적용되고 있다. 일본 제1 민영철도기업인 JR의 경우 광범위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RFID와 GPS를 혼합한 방식을 통하여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있다. **물류**